



드림꽃편지 635

2021.12. 22. 동지호

<http://cyw.pe.kr>

들판의 들꽃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꽃집에서 살 수 없는 꽃은? 들판에 무수히 피어있는 들꽃은 꽃집에서 돈 받고 팔지 않고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누구든 원하면 그냥 들판에 나가서 꺾어오면 됩니다. 들판의 들꽃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돈 받지 않습니다. 왜 들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까요? 그것은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공기'나 '햇볕'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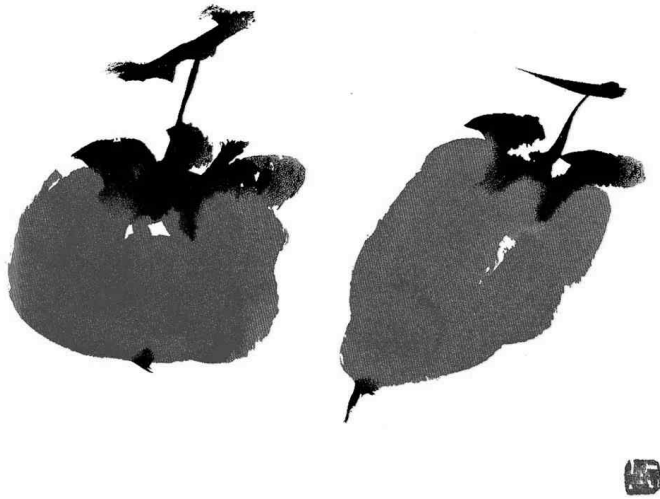


들판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수, 세례 요한, 바울... 개역 성경은 '광야'라고 번역했지만, 꽃이 있어야 벌이 있고, 벌이 있어야 꿀이 있겠죠?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이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들판'입니다. 요즘에 번역되는 쉬운 성경들은 다행히 '들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 들판, 빈들은 '미드바르'라는 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저는 '들판'이 우리 정서에 맞는 적당하고 좋은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눅3:2) '빈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 소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미드바르'의 원어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판 어디에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특정한 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들에 피는 모든 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들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년 동안 만들고 있는 <들꽃편지>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들판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니는 최용우 올립니다.



해 뜨는 먼 산
감나무와 우리 집
산에 핀 이름 모를 꽃들
먼 산 먼 하늘
향긋한 계절의 냄새
이 모든 신비스러움!

글 그림 송수남 (홍익대 교수)

유원지에

곰이 곰을 낳고
소나무가 소나무를 낳는다.
만고불변의 법칙이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낳고
쓰레기가 쓰레기를 낳는다.

인적 없는 산에는 쓰레기도 없다.
인간들의 유원지에
쓰레기가 많은 까닭은
그곳에 많은 쓰레기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 26

아파트 경비만 한다면야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지만
주변 청소도 해야 하고 쓰레기장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택배 관리도 해야 하고 아파트 조경도 해야 하고 전등도 같고
민원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뛰어 올라가야 하기에 항상 바쁩니다
사실 이렇게 바쁜데도 월급은 최저 임금만 줍니다.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가장 짜증 날만한 일은 담배꽂초를 줍는 일입니다.
아파트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입주민들도 좋아 할텐데
왜 담배 꽂초를 버릴까 생각하지만 위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꽂초를 창문으로 휙 던져 버립니다.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아서면 또 담배 꽂초가 있습니다.
“에이 쌍. 어떤 놈이....”
투정하며 또 담배 꽂초를 줍지만 속이 상합니다.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너 그거 주우라고 월급 주고 있잖아.
아파트 주변이 항상 깨끗하면 너 같은 거 아파트에서 쓰겠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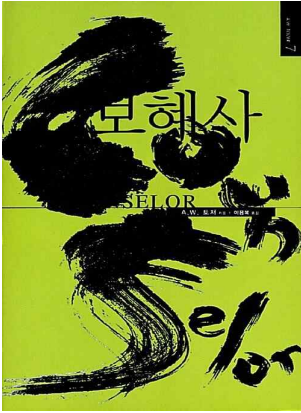
“그래! 담배 꽂초 주우면서 감사해야지.”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셧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보혜사



토저 마이티 시리즈 7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61쪽 11,700원 규장 2006

토저의 성령론 3부작 가운데 최종 결정판이다. 성령님에 대한 별칭인 '보혜사'는 'the Counselor'라는 영역처럼 성령이 바로 우리 곁에서 격려하고 권고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1. 기쁨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기쁨은 '반복적인 찬양의 최면'으로 기쁨을 얻으려 하거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쁘고 행복하다고 자기암시를 하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들에게 임했던 능력과 똑같은 능력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 영향력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 더 신경을 쓰며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3. 주일 신자들

주일 하루만 교회에 와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는 딴사람이 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험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권모술수를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재미와 세상이 주는 인락에 빠져서 평일에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4. 혁명과 개혁

혁명은 판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이고, 개혁은 기존의 체제를 새롭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혁명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통제 앞에 무릎 꿇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살아온 삶에 약간의 변화만을 원합니다.

5. 죄를 회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죄'를 제거(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을 마음 속에 숨겨 놓고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열망에 불타는 사람은 '정결케 하는 불'이 그 온 마음의 죄를 불태워서 깨끗하게 해 줍니다.

6.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은 미풍(微風)처럼 부드럽고 폭풍처럼 강하고 '맑은 물소리'(계 1:15)처럼 우렁찹니다. 때로는 음악 같고,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갈망하지 않으면 그런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7. 성령에 대한 무지

지금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고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차근차근 천천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급진적이고 분명하게 임하십니다.

8. 변화될 각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나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각 마을마다 한 둘은 있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사람들처럼, 성령에 사로잡힌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9. 아담의 타락한 본성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은 딱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10. 깊은 고독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깊은 절망과 고통을 느낄 때까지 고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런 고독의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성령은 선물이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값싼 선물이 아닙니다. 창에 찢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값인 것입니다.

11.나의 그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12:1)나의 몸을 하나님께 그릇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릇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채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담긴 모든 것 마음, 인격, 영, 사랑, 재능, 열망, 꿈 모든 것을 다 그릇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12.성령을 구하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11:13) 그릇을 드린 다음에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아무리 빈 그릇이라 하더라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구하라고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채워 주십니다.

13.마음의 준비

성령 충만은 믿음과 순종으로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과 존재를 완전히 소유하고 나의 온 인격을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는 직접적이지만 또한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4.홀연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행2:2) ‘홀연히’는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홀연히’ 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희미하게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홀연히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15.세상은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요14:17) 세상은 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알지만 성령님은 모릅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이 막연하게 좋은 곳(천국?)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善)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모릅니다.

16.까마귀

홍수가 그친 후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까마귀는 홍수로 황폐해진 세상에 발톱을 박고 썩은 음식을 먹느라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들 안에 있어 까마귀처럼 황폐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죽은 것들 위에 문명을 건설하며 살아갑니다.

17.비둘기

홍수가 그친 후 노아의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는 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서 발붙일 곳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발을 붙이고 내려앉으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잘 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18. 타력의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네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고 하는 ‘자력’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참선’을 하고 ‘능력 개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네 안에 잠자는 사자를 깨워라>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개발’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로부터 어떤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타력’의 종교입니다.

19. 잠재력과 성령

어떤 이는 “마음을 편히 하고 집중하여 당신 안에 있는 ‘창조적 능력’을 계발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인 잠재력을 일깨우라고 하는 것인데, 틀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안의 능력을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타력으로 받는 종교입니다.

20. 제자들의 변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는가? 성령을 받은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권력만 탐하다가 예수님이 죽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고향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떠났던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순간 완전 180도 달라져서 순교까지 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변화됩니다.

21. 기쁨과 재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재미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쁨’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니 그와 비슷한 ‘재미’를 얻으려고 나이트클럽이나 게임 같은 것으로 발광을 합니다. 교회도 위에서 임하는 기쁨이 없으니 스스로 재미를 만들려고 온갖 전자악기로 사람들의 심령을 홀리려 하고 있습니다.

22. 카리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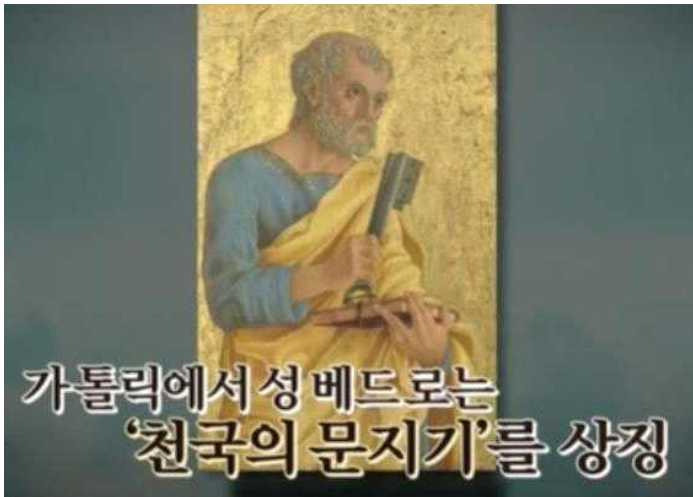
성령의 능력을 ‘카리스’라 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갈 때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잔소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 쪼개버리는 ‘카리스마’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권능을 받고(행 1:8)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찢어져 “우리가 어찌할꼬”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행 2:37)

*독서일기 ©최용우

나의 소원

주님 없는 세상에서 천 날을 살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서 큰 부를 얻기 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님 없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주님 나라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시84:10)

최용우 제5시집<찬양하라 내영혼아>中



[덧글]

최용우/ 주님. 어떤 분이 “네 소원이 무엇이야?” 하고 묻기에 얼떨결에
“주님 나라 문지기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해 놓고 한참을 웃었어요.
그 자리는 이미 베드로 사도의 자리인데....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183. 별의 신격화에서 보이는 모순

별들도 각 신들의 이름이 붙었는데 특별히 빛나는 금성에는 '베누스 달'이라 이름 붙여서 가장 빛나는 별이라고 한다. 그런데 모든 신들의 왕인 주피터의 별은 베누스 보다 훨씬 작은 별의 이름이다. 주피터의 힘이 다른 신들보다 뛰어나다면 당연히 그의 별이 가장 빛나야 하지 않은가?

184. 그밖에 선택된 신들의 위치에서 보이는 모순

미네르바는 인간이 하는 온갖 예술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나 이 여신에게 어울리는 별을 찾지 못했기에 그들은 이 여신을 '달'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달은 우주에 맨 아래에 있는 가장 가치 없는 별이라고 여긴다.

185. 바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역측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바로는 그의 두 번째 책에서 "내가 이 책에서 신들에 대해 의심스런 견해를 말한다고 해도 그 때문에 비난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뒤, 더 확실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자신의 이야기가 역측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186. 인간을 신격화한 이교도의 신들

이교도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주장한다. 신들은 처음에는 인간이었지만, 이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 사람들이 그들을 신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에게 그 재능과 성격, 역할, 운명을 바탕으로 종교의식과 제전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식과 제전은 온갖 정령들과 비슷한 영혼을 가지고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속에 서서히 스며들어 멀리 퍼지면서 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187. 사투르누스

바로는 '사투르누스'가 갈고리를 지닌 까닭은 '농사일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투르누스'가 다스리던 원시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땅에서 자연적으로 생긴 씨앗을 먹고 살았다. 필요도 없는 갈고리를 달고 있었다니 말이 안 된다.

성령과 교회



1. 성령과 교회의 시작

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선민)과 동행하셨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동행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를 보내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토록 살 수 없는 육체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물리적 교회의 시작을 대체적으로 성령님이 오신 성령강림절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부여된 사건을 ‘오순절’ 또는 ‘성령강림절’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날 ‘교회설립예배’를 드렸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그날을 성령님이 모임 가운데 처음 오신 날이라 그 모임을 ‘교회’라 여기고 그날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해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자”(눅24:29) 오합지졸 제자들이 불가항력적인 힘에 압도되어 순식간에 강력한 사람들로 뒤집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엄청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성령시대'의 시작과 동시에 교회시대를 연 것입니다. (7086)

2. 성령과 공동체

성령강림은 갑작스러운 사건이었고 제자들의 태도 변화 역시 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로 튕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예수 부활, 승천 이후 마가의 집 다락방에 숨어있던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어리둥절한 군중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수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바벨탑 사건 이후(창11:1-9) 이 땅을 지배하던 혼돈('바벨'은 히브리어로 '혼돈'이라는 뜻)의 세계가 성령님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질서와 깨달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모든 종족과 사회 계층,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행10장) 그렇게 복음은 일파만파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갔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행1:8)

갑자기 터진 성령의 폭발에 당황한 세력들의 다양한 반격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적극적인 변증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 군중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성령 사역과 반응을 의사 출신 '누가'는 열심히 기록하여 후세인들에게 '사도행전'으로 남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사렛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앙공동체가 태동하여 기도, 예배, 세례, 성찬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3. 초대교회와 기도

사도행전은 예수 승천 이후 33년부터 60년 초반까지 약 3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사건(64년)과 예루살렘 함락 사건(70년)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을 쓴 때는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한 사건(61년)이후 인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함락 이전을 '전기 초대교회'로, 예루살렘 함락 이후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야 했던 시기를 '후기 초대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강림 이후 '기도'는 신앙공동체의 중심이자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나바, 바울이 기도 가

운데 강령한 성령의 불을 받아 세상 속으로 돌진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였다 하면 뜨거운 간구와 간절한 중보기도 그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심령으로부터 터져 나와서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행4:31)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불 꺼지고 단단히 잠겨있는 교회를 향하여 만약에 제가 “교회는 누구든지(만민이) 어느 때든 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놓아야 합니다.”라고 외친다면 “교회 안에 도둑들이 훔쳐 갈 비싼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데 참, 물질 모르는 소리 마라”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겠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막11:15-18) (7088)

4. 초대교회와 예배

아마도 우리나라 99%의 교회 모습은 네 개의 벽, 가능한 높은 위치로 올라간 강대상, 그리고 정면 휘장을 향해 쪽 늘어져 있는 장의자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은 모두가 앞을 보게 되고 강당상에 선 사람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앞만 보고 집중하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면 그뿐입니다. 옆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 그림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당과 같은 구조의 예배당 그림을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가정에서의 환대와 개방’이 특징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독립된 구조의 건물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 모임은 모든 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대접하는 ‘보편성’을 담보한 원형 모임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바라보는 형태가 아니라, 서로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둥그렇게 둘러앉았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로버트 뱅크스 지음 IVP)

3.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고, 중세교회는 ‘제도화된 교회’였고, 오늘날 개신교회는 ‘설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외치는 그 ‘말씀’이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까? ‘설교’는 성경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말씀이 ‘성경’에서 ‘설교’로 대체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과 같은 식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신앙체험을 뛰어넘는 ‘공동체’성으로 신분과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열방의 이방인들을 품는 둥그란 교회였습니다. (7089)

5. 초대교회와 복음

사도행전에서의 성령님은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道, way)를 온 세계에 전파하고 온 인류를 품게 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여십니다. 기존의 '유대교'라는 그릇으로는 '온 인류'를 품을 수 없기에 '유대 민족적 정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배성'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복음)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모든 인종, 신념,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 복음이 2천년을 뛰어넘어 아시아 변방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저 같은 사람에게 까지 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였습니다.(행15장)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새로운 공동체 안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중요한 할례는 구원을 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온 세상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행15:22-29, 갈2:9-10)

사도행전은 '유대주의'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문화적인 질그릇의 억압을 깨뜨려 버리고 혈통, 성별, 사회적 지위, 국적,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도록 새로운 질서를 만드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오늘날 그 누가 마치 저 유대인들처럼 인간이 만든 관례, 교리, 교단 헌법, 관행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면서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7090)

6. 초대교회의 골치거리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완벽한 것으로 착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교회 이름도 '초대교회'라고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안에도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교회 안의 문제들과 똑같습니다.

1. 율법주의 문제 -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체계'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무수히 많은 '율법'이 생깁니다. 복음이 아닌 만들어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른 교인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주일성수'나 '새벽기도'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일은 '성수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날'은 아닙니다. 뭣이? 제

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어마어마한 율법의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2.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도덕률에도 매일 필요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를 저지르면서도 뻔뻔하게 자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진짜 열반쪼.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3.교인들 간의 다툼 -성령공동체라 하면서도 자기 것을 챙겼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차이로 싸우다 화합하지 못하고 헤어졌던 일이 초대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나 오늘날 현실교회나 골칫거리는 똑같습니다. (7092)

7.하나님의 사랑은 모두 사랑

저의 외할머니는 자식을 10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님이 여섯, 삼촌이 셋입니다. 왜 이모가 여섯이나 하면 한 이모는 제가 본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때 뒤에서는 공산군이 때발총을 쏘며 쫓아오고 앞에서는 피난민들이 정신없이 아이들을 양 손에 붙잡고 도망치고... 하나라도 살리려면 한 손을 놓아라고 사람들은 소리치고... 외할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며 끈으로 손을 묶어서 아이들을 모두 질질 끌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들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동시에 불신자들, 타종교인들, 이단이라고 규정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인간이 그 사랑을 받지 않거나 오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딸이 둘 있는데, 가장 속상할 때가 부모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 맘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켜보기만 할 때가 많습시다.(강제로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방자하게 행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으로 인간들을 직접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7093)

8.성령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창조한 자연계와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 스며있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를 발견하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맞춤’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시기에 이제 그 일을 대신할 ‘도우미(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행14:26)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기운이나 능력 같은 어떤 ‘기능’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성령을 자기가 인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거짓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마24:23-27,살후 2:9)

성령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배우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는 용기와 도전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동일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성령 사역을 잘 분별하여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너무 제한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서 신앙적으로 무능하고 게으르면 안되지요? (7094) ©최용우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햇별같은이야기〉는 1995.8.12일부터 매일 아침 원고지 5매 1000자 정도의 짧은 칼럼을 25년 동안 매일 이-메일로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아침편지입니다. 〈햇별같은이야기〉는 10000번 발행을 목표로 2021.12월 현재 7100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동안 쓴 글을 모은 350쪽 내외의 책 22권을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최용우’로 검색)



열매 (사진:최용우)

사진 한장

주보든 회보든 책이든 가장 먼저 표지를 만든다. 표지를 만들어 한 장 출력해 벽에 딱 붙여 놓으면 마치 다 만든 것처럼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그런데 이번 주 주보에 넣을 사진이 마땅치 않아 몇 번 사진 바꾸기를 하다가 그냥 핸드폰 들고 밖으로 나갔다.

뭐든 찍을 게 있나 두리번거리며 찾아다니는데 대평지하도 옆 언덕에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이 보였다. 무슨 열매인지는 모르겠다. 산사 열매인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다.

이런저런 각도로 몇 장 찍어와서 그중에 한 장을 잘라서 표지에 넣어 보니 비로소 마음에 든다. 새들도 단 열매를 좋아해서 신맛이 나는 열매는 잘 안 따 먹는다. 지금까지 새들에게 먹이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 신맛이 나는 산사 열매일 가능성이 많다.

무슨 열매면 어떤가! 나는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 건졌다.

호접란 한축

큰딸이 사용하던 방을 아내가 사용한다기에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공간 욕구' 때문이었음.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넓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그 방을 '작은 예배실'로 만들었다.

원래 있던 십자가 아래 내 방에 있던 기도 책상을 가져다 놓으니 1분만에 똑딱 끝났다.^.^ 그래도 뭔가 허전한 것 같아 뒷동산에 가서 감국꽃을 꺾어와 꽃병에 꽂아 십자가 아래 놓으니 근사하다. 그렇게 새로 생긴 나의 작은 지성소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때로는 혼자 예배를 드린 지 벌써 두 달이 되어간다. 아내도 방 사용에 대해 별 불만이 없는 것을 보니 그냥 '공간 욕구'인 것이 맞다.

감국이 져서 내다 버리고 꽃 중에서 오래 가는 호접란 화분 하나를 사와 십자가 아래 받침대 만들어 올려놓았다. 근사하다.

아내의 방 겸 나의 기도실에 햇볕이 따뜻하게 비친다.



1박2일 김장

"그래도 겨울이 오면 김장을 해서 김치냉장고에 꽂 채워놓아야 마음이 든든하제에~!"

요즘엔 사계절 김치가 공장에서 나오고, 또 먹을 것이 많아서 옛날처럼 김치를 많이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김장은 포기 못한다는 두 모녀(장모님과 아내)가, 올해는 진짜 쪼끔 30포기 김장을 했다.

우리 집은 김치통으로 세 통을 가져온다.

"올해는 그냥 한 통만 가져오세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통이나며 여전히 세 통을 가져왔다.

김장은 버무리는 것보다 속 재료 준비하는 것이 더 힘들다며 아내가 하루 전날 친정에 가서 1박2일 김장이 되었다.

덕분에 1박2일 동안 혼자 독수공방하며 잠을 잤다.



은행 털기

대전에 사는 김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은행 올해도 잘 열렸지요?” 그렇게 몇 주 만에 서로 스케줄을 조정하여 오늘 오후에 만나 드디어 은행을 털었다.

점심을 한 시간 일찍 먹고 먼저 산에 올라가서 떨어진 은행을 주웠다.

한 시간 후에 집사님 부부가 도착했다.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 비닐을 짝악 깔더니 나무에 올라가서 흔드니 은행들이 우수수수수수.. 아내와 내가 한 시간 동안 허리 꼬부라지도록 열심히 주운 은행은 버려도 될 만큼 엄청난 양이 순식간에 떨어졌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몸이 고생을 안 해... 끄꿍대며 밀다윈 냇가까지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보얀 은행의 살결을 드러내 버렸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은행을 수확했다. 이후에 <추어명가>에서 추어탕으로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뭤라들까

인간들의 인생이란 대충 태어나서 학교에 다니고,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20여년 동안 자식을 키워서, 그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조금 더 살다가 죽는 순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의 인생에서 지난 9월에 큰딸이 서울로 올라간 이후 두 달 동안은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인생의 큰 마디’ 앞에서 심한 마음 앓이를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든 자식이 하나들은 꼭 옆에 있었는데 이제 둘 다 부모 곁을 떠난 것이다. 이제부터는 아내와 나 둘이서만 살아야 한다.

한 사람의 빈 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상황을 딱딱뜨리니 마음이 너무 허전했다. 그 옛날 나는 고등학교를 부산으로 가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왔었다. 그때 울 엄마의 마음도 이렇게 가슴에 찬바람이 불었을까?

두 달 동안 마음의 텅 빈 공허함을 책 읽는 것으로 채웠나 보다. 두 달간 알라딘과 교보문고에서 날마다 책을 주문했더니 ‘골드회원’이라고 하네. 교보문고도 최고 높은 단계인 플래티넘인가 뭐라고 하던데...

두 달 지나니 지금은 조금 나아졌다.

알라딘

나의계정 | 주문조회 | 내회사제 | 고객센터

알라딘 멤버십 Gold 회원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용우 고객님, 알라딘 멤버십 골드 회원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3개월 간의 고객님의 순수구매총액은 218,550원이며 앞으로 2022년 02월 08일까지 '국내도서 외 상품'과 함께 구매한 주문의 한해 중 주문 금액의 2%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립니다. (한 최대 '국내도서 외 상품' 주문 금액단위)

알라딘 멤버십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 매거진을 클릭해주세요.

일상의 묵상

학산빌라 수돗가에서 김장을 하더니 누군가가 무 콩깍이를 담에 올려 놓았다.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다. 저 무청 말린 시래기는 김장을 한 주인이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갈까? 무청의 운명을 누구도 알 수 없다.



내년에 그동안 찍은 사진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나누어 네 권의 사진, 묵상집을 만들려고 준비중이다. 내가 사진작가는 아니니 퀄리티 높은 작품사진 집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리얼리티(Reality)라는 주제로 평범한 일상 사진 아래 원고지 한 장짜리 짧은 묵상을 배치한 책이다.

어떤 분이 "전도사님은 일상의 사물을 특별하게 보는 눈을 가지셨나봐요. 사진들이 다 공감이 갑니다. 정겹고 하나님의 따스함이 느껴져요."라고 하셔서 용기를 내 보았다.

하나님은 예술가

아내가 양파를 다듬어 바구니에 담아 놔는데 하루 지나니 양파 줄기가 조금 자라 있었다. 양파는 정말 잘 자라는 식물인가 봐. 나는 그것보다는 잘라낸 부분의 기하학적인 모습이 너무 신비하고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예술가이시다. 인간은 기껏 어느 한 장면을 캔버스에 그리거나 조각으로 만들 뿐인데 그러나 그 작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은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다르다. 또 생명이 있어서 순간순간 그 모양이 달라진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일상 가운데 드러내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는 일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인 것은 깨닫지 못한다.

서울까지 가기도

목요일 대학수능시험일 오후 4시 30분에 바리바리 차에 가득 싣고 세종을 출발하여 서울 딸들의 집에 밤 8시30분 도착했다. 정말 차가 많이 막혔다. 좋은이가 하루종일 고민하여 만들었다는 저녁을 먹고 가져온 짐을 풀고 오랜만에 만나 이야 기꽃을 피우다가 잤다.

다음날 아침에 습관적으로 5시에 눈이 떠져 아내는 주방에서 달그락거리고 나는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어 이불 속에서 몽기적거리고.. 밝은이는 오늘 쉬는 날 이라고 늦게 일어난다고 선언을 했었고, 좋은이가 잠시 후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 을 해 먹었다.

매월 아이들이 세종으로 내려왔으니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한 것이다. 밥을 먹고 뒷산인 까치산에 올라갔다. 아내는 서울까지 와서도 산이라며 툭툭대더니 따라 나선다.

점심을 먹고 또 3시간을 달려 집에 왔다.



팔칼국수

“이따가 예배 끝나고 팔칼국수 드시러 가실래요?”

“좋지. 굿!”

서울 이수역 사계시장에 갔을 때 김이 펄펄 나는 팔칼국수 가게 앞을 지나가면 서 “우리 팔칼국수 먹을까?”라고 했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대꾸를 안 해서 그냥 지나쳐 왔었다. 쟈~!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지 오늘 아내가 팔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한다. 팔죽 중에 팔칼국수는 전라도에서는 아주 흔한 ‘전라도 음식’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팔칼국수 가게를 찾기가 힘들다. 충청도에선 팔죽에 동그란 새알을 넣어서 먹는다.

대전 봉명동에 아주 유명한 팔칼국수 전문점이 있어서 찾아갔다. 어릴 적 엄마가 솥단지 가득 팔칼국수를 쭈어 주어서 식구들이 배 터지게 퍼먹으며 허기를 달래던 눈물 젖은 음식!



흙길

요즘 날마다 운동을 다니는 용수천 뚝방 길을 사진으로 찍었다. 뚝방길도 요즘에는 전부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이렇게 흙길로 남아있는 곳은 찾기가 힘들다. 이곳도 성덕교 다리에서 금강까지 약 2km 구간만 흙길이다. 나는 매일 이 구간 왕복 4km를 걷는다.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다. 양쪽으로 사람 키만큼 풀이 우거져 있었는데 최근에 풀 깎는 차가 두어 번 왔다갔다 하면서 풀을 제거하여서 길이 넓어졌다.

이곳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길이라서 나는 찬송을 크게 부르거나 큰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걷는다. 한동안 목소리가 잠겨서 안 나왔었는데 이 길을 걸으며 소리쳐서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풀렸다. 참 좋은 길인데 한 가지 흠이라면, 근처에 목장이 있어서 소똥 냄새가 솔솔 난다.(여름에는 특히!)

점심 메뉴

몸무게가 73kg까지 빠졌다. 목표인 70kg까지 이제 3kg 남았다. 이제부터는 밥의 양을 조금씩 늘려서 몸무게가 더 내려가지 않게 하고 70에서 75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평생 이 몸무게로 살 생각이다.



오늘 냉장고를 뒤져서 차린 점심은 '무쌈'과 '김치순두부국'과 '오곡밥'과 '겉절이김치'이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점심이다.

사람의 체질이 바뀌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음식을 바꿔먹어야 한다고 한다. 밀가루 음식과 튀긴 음식과 고기를 끊고 흰밥에서 현미오곡밥으로 바꾼지 거의 6개월이 지나간다.

내 몸도 많은 변화가 있어서 배도 속 들어가버렸고 빵빵했던 옷들이 너럭해져서 옷의 핏이 살아나고 있다. 오랜만에 나를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을 뺐냐며 놀란다. '라면' 끊은지 6개월이 넘었다니까... 쉽게 빠진 것 아냐...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

▲제528회 비학산220 (일출봉252m) 2021.11.12

▲제529회 국사봉(392m)

공주반포면 봉곡리 마티고개에서 청벽산으로 흐르는 능선에 있는 국사봉(392m)에 올랐다. 이미 여러 차례 갔던 곳이라 맨 마지막에 편하게 가려고 남겨두고 있었던 곳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도 별로 편하지 않은 산행이었다.



그동안 500번이 넘는 등산을 하면서 길을 잃고 산을 헤맸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서다. 나는 그때 '귀신에게 흘렀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정신 바짝 차리고 올랐는데도 길을 잃을 뻔했다. 얼른 깨닫고 트랭글을 쳐서 길을 찾아 등산로로 올라섰기에 다행히 많이 헤매지는 않았다.

계룡산에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쫓겨난 무당들이 국사봉 아래로 몰려들어 이 주변에 굿당들이 십여개 모여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기분이 묘해지는 곳이다. 다시는 안 가고 싶다. 2021.11.13

▲제530회 비학산221 (일출봉252m)

비학산 가는 길목마다 못 보던 팻말이 붙어 있었다. 최근에 지역 체육회에서 좋은 글귀를 적어 만들어 붙인 판넬이었다. 산을 오르면서 계속 팻말 사진을 찍었다.

정상까지 다섯군데에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쑥티고개 입구에 붙어 있는 구절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세네카가 한 말이다. 2021.11.20

▲제531회 비학산222 (일출봉252m) 2021.11.26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우영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동지(冬至) -동지설날입니다.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 밤의 길이가 일년 중 가장 긴 날입니다. 내일 부터는 태양이 기운을 회복하여 낮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동지를 '작은 설날'이라 했습니다. 동지에는 팔죽을 먹는데 팔죽은 잔병을 없애주고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D를 보충해 줍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솔가지에 팔죽을 묻혀 대문 문지방에 바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재앙을 피했던 것과 비슷하군요.

②표지사진 이야기



“전도사님 제 마음이에요”

라며 일본 니가타현에서 목회를 하는 이재익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입니다.

“일본에도 파리가 있어요?”

일본에도 파리가 많답니다. 교회 화단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트(♡)모양 같습니다.

빨간 열매 껍질을 주물러 부드럽게 하여 바늘로 구멍을 내고 씨앗을 빼낸 다음 껍질을 잘근 깨문 뒤 후~ 불면 파악! 파야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들꽃편지2권 숙부쟁이꽃> - 504쪽 21,200원 -11월30일 발행!

55.예동-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326쪽 14,600원 -11월5일 출간

54.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10월15일 출간

53.일출봉에 햇별이 쨍하오 207쪽(올컬러) 13,600원 -9월17일 출간

52.일상의 행복 207쪽(올컬러) 13,600원 -7월8일 출간

51.예수님의 말씀들 듣는 산행 534쪽(올컬러) 31,800원- 5월6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40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1.11월 재정결산

2021년 11월(1-30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준경 박근식 박승현 박신혜 신명희 양희창2 오창근 옥치오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효숙 조인훈4 주명혁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황성운 1004 3906
구글 새벽기도 성실교회 안디옥교회 예사전선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지난달에는 모두 29분이 1,723,947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1.12.20일 현재 7116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56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6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인터넷,복방선교,선교사,아동 각1곳씩)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새로 나온 책

이 쪽지는
하늘이네집에서
구원의 비밀과
마음의 양식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들꽃편지〉제2권-썩부쟁이꽃
최용우 엮음
504쪽 21,200원 교보문고 퍼플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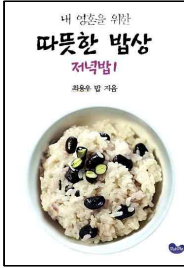
〈들꽃편지〉는 만남의 설레임으로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띄우는 작은 꽃 한송이 같은 편지입니다. 전에는 일일이 손으로 쓴 진짜 편지였습니다. 할 말도 많아지고 페이지도 더 늘어난 지금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만 마음은 여전히 연필에 침 문혀 푹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들꽃편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활영성' '쉽' '나눔'을 추구하며, 그런 풍요로움을 느끼고 따라 사는 소박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하나님의 미소가 빙그레 번지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들꽃편지〉는 1990년 1월 창간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펴내고 있는 기독교문서선교지입니다. 〈제2권〉은 62부터 128호까지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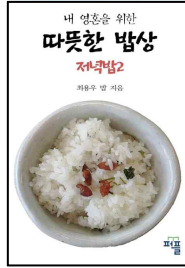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용우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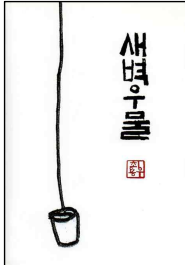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저녁밥1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 따라 신학적 교리적 조미료 치지 아니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단순하게 읽은 쉬운 말씀묵상 마태복음-마가복음을 1년 동안 묵상합니다
14,100원 400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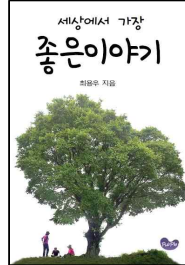
따뜻한 밥상-저녁밥2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로 묵상하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했습니다. 누-요한 복음을 묵상합니다.
17,300원 398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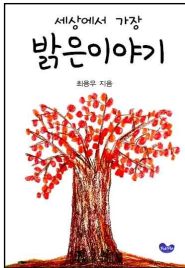
새벽우물

얼어붙은 내 영혼 내면의 바다를 깨부수는 한 자루 도끼와 같은 책! 총총히 맑은 물 채운 새벽우물! 햇볕 1980호부터 3501호 까지 1422편 단행본 5권 분량을 한권으로 크게 묶었습니다.
28,700원 878쪽 펴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볕같은 이야기 아침편지 1호-1019호까지 4년 분량 1019편의 좋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4,000원 722쪽 펴플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

매일아침 차 한잔 마시면서 전국의 14만 독자들에 메일로 발송하였던 햇볕같은이야기 아침편지 1020호-1979호까지 5년분 960편 밝은 글을 읽기 좋게 순서대로 모았습니다.
23,900원 720쪽 펴플



플러스 예화

두란노서원에서 매일 펴내는 큐티 묵상집 월간<생명의삶+>(묵상과적용)코너에 17개월 동안 썼던 예화 452편을 모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고품격 inside 예화집입니다.
17,000원 490쪽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볕같은이야기 <http://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하나은행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속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5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